

청소년 물질남용과 관련된 문헌 고찰

김 귀 분* · 이 경 호**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들은 미래의 우리 사회를 이끌고 나아갈 세대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하게 추진된 경제발전과 서구문화의 무분별한 도입으로 사회구조 및 가치체계의 변화가 일어나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과 상실의 일이나 성인으로 성숙되어 가는 과도기의 청소년들에게는 행동의 부적응 현상이 일어나 범죄행위와 폭력이 급증하는 각종 사회 병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기대주인 동시에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이중성을 지닌 존재들이다. 기대와 불안, 희망과 걱정, 신뢰와 불신 등 상반된 사회적 인식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존재들이 바로 청소년들이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는 희망적인 기대감보다는 걱정스런 불안감을 가지게 하여 요즘 청소년들이 '정신'과 '인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면 미래의 주인인 그들이 이렇게 커가도 좋은가하는 문제에 접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많은 변화를 겪게되고 달성해야할 과업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커서 그들이 경험하는 정서적인 혼란과 갈등이 크며 해야 할 과제가 많으나 자기 통제와 조절 기능이 약해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은 쉽게 좌절하고 불안, 우울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러한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외로움과 불안 좌절을 잊기 위해서 피난처를 찾게

되며 격동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물질에 의존하게 되고 좀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어 물질남용으로 빠지게 된다(김현수, 민병근, 1988).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독속도가 빠르고(30세 성인 남성의 경우 8-10년, 15세 청소년 15개월) 감정정체가 용이하며 감정조절 실패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여 나타나는 병폐의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김경빈, 1992),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층의 15.5%(150여만 명에 해당)가 물질남용을 경험한 바 있다는 한국청소년학회통계(1996)를 보더라도 청소년 물질남용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 물질남용은 청소년들의 육체적 손상은 물론 정신적 손상 그리고 행동의 이상을 가져와 결국 개인의 파멸을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행위는 정신을 마비시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고 그들을 황폐한 정신으로 이끌어 자신의 파괴뿐 아니라 가족, 사회의 파괴에까지 이르게 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커지게 한다. 미래를 이끌어 나갈 이들을 건강하게 성숙시키는 것은 청소년 자신들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이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사회 병리적인 현상이 난무하는 현대에서 현실의 문제점을 긍정적이고 건강하게 극복하여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가정과 학교, 사회의 전체적인 관심과 격려 및 증제가 시급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청소년 물질남용문제가 사회적으로

*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간호과학부 교수

** 경희대학교 대학원 간호과학부 박사과정생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문헌을 통한 청소년의 물질 남용에 대한 실태를 확인함으로써, 우리나라 물질남용 청소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물질남용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와 관련된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목적

현대 사회의 시대적 조류에 따른 청소년 문제는 매우 위험한 수위에 다다르며, 특히 물질사용과 관련된 청소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 물질 사용과 관련된 문헌을 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정확한 문제 확인은 물론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물질남용과 관련된 실태를 파악한다.
- 2) 청소년의 물질남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종류를 파악한다.
- 3) 청소년의 물질남용으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 4) 청소년의 물질남용과 관련된 간호중재방안을 모색한다.

II.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기는 생식기가 성숙되는 생리적 변화 단계인 사춘기와 더불어 시작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지적,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성인으로서의 주체 의식을 확립하고 인격과 가치관을 발달시키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적인 발달단계로 12세-13세부터 20-21세까지를 말한다(김소야자, 1987). 청소년기는 아동기 말과 성인기 시작사이의 전환기로서 신체적 변화, 인지적 발달 및 가정과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내면적으로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는 정서적 격동 시기이다(홍강의, 1984).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양심과 격동의 갈등 속에서 자아개념을 확립하게 되며, 의욕과 호기심이 절정에 달하는 감수성이 예민한 때이므로 이들의 갈등과 충동은 주어진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면, 반항적이거나 공격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청소년기는 발달적 특징이 신체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지능력, 도덕성, 가치관, 자아정체감 등 지적이고 정의적인 특성도 나타나게 되어 10대 동안의 걱정적인 감정은 인생의 경험 중에 가장 의미있는 것이 되어 이 시기의 경험에 반영되는 문제들은 한 인간으로서의 발달에 중요하다(김소야자, 김윤희, 이광자, 이소우, 유숙자, 1996; 한국문화연구원, 1989). 이 시기에는 심리적, 사회적으로 심한 혼란과 변화를 겪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형성되지 않는 자아정체와 역할 혼란으로 어려움을 겪게되어 심리적 부적응 상태인 청소년들은 고독, 갈등, 방황이 비행이

나, 약물사용행위, 범죄행동으로 나타나게된다.

청소년의 사회적 성장과 발달면을 보면, 그들은 정서적으로 성숙되어 심리적 이유 현상이 나타나 그들의 관심은 가정에서 친구들에게로 향하며, 정서적으로 독립되어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며 집단을 형성하고, 이성 앞에서 자신을 내세우고, 외모에 관심을 갖고, 권위에 반항하며, 자아의식 발달로 편견을 갖고,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며, 사회적인 통찰력이 생기는 특징을 보인다(정우식, 1986).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은 고조된 감정을 경험하기 시작하여 정서에 일관성이 없고 변화가 심하고 불안정하며, 사건이나 사회적 상황에 매우 민감하고, 극단적이고 강한 반응을 보인다. 그들은 정서와 사고의 양극성으로 다양한 정신 생물학적 욕구사이에 조화가 부족하여, 양가 감정을 지니게 된다. 이시기의 청소년은 역할에 대한 준비결여, 부모의 무관심과 반대, 늘어나는 경제적 욕구 등이 정서적인 고통을 유발시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하여 충분히 배출하지 못할 때에는 신체의 민감한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인 소외, 부적응 행위를 초래하기도 한다(박예숙, 1983). 청소년 시기에 만성적인 정서적 고통을 당하면 그들은 고통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이로 인해 신경증적 행동이나 비행, 가출, 물질남용 같은 행위로 반영된다. 그리하여 많은 청소년들은 의지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갈등을 내적으로 해결하는 대신에 약물등을 취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을 일시적으로 피하려고만 한다(김영란, 1985). 그리고 청소년시기는 신체적 변화, 인지적 발달과 함께 부모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욕구가 생겨 서로간의 대화가 어려워지게 되므로, 이 시기의 가족간의 대화 및 긍정적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 시기는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기분변화가 심하고 우울반응이 많고 사회적 민감도가 높은 시기이므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가족 서로간의 이해로, 사고와 지식 등 모든 면에서 동등한 입장으로서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며 서로의 이해와 관심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상호관계는 신뢰와 애정을 발전시키며 서로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Hoffman과 Weiss(1987)는 청소년기의 가족기능이 역기능적이거나 가족체계가 올바르게 기능하지 못할 때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분리되지 못해 갈등을 경험하고 또 부모간 갈등이 심한 상황의 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대인관계상의 갈등, 학업문제에 있어 부적응적 행동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Angell(1936)은 가족통합과 가족적응이라는 두가지 중심개념을 사용하였으며 가족간의 통합을 가족공동의 관심사, 애정, 경제적 독립에 관한 서로간의 인식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족생활 안에서 흐르고 있는 결합의 유대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올바른 가족의 통합은 가족 간에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유연한 대응,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적극성, 그리고 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Westley와 Epstein(1969)은 부부관계의 조화가 청소년의 정서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여 모계중심과 부계중심 가족의 아이들은 의지력 부족과 정서적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 반면, 서로의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가족에서는 문제점이 없고 상당한 의지력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오늘날 한 개인에게 나타나는 역기능적인 행동(불안, 우울, 물질남용, 성적장애, 정신분열병 등)에는 가정의 그릇된 체계가 반영된다는 입장이 서서히 대두되고 있다(장혁표, 제석봉, 김정택, 1995). 현대 가족의 고유기능 중 많은 부분이 사회로 옮겨가고, 핵가족으로 변해가고 있어, 가족구성원들은 상호 연결되어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질서있는 가족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큰 의의를 지니게 되었다. 가족상호간의 관계는 모든 측면에서 각자가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관계를 이루어 신뢰와 애정을 발전시킬 때 서로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될 수 있으므로 가족요원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은 모든 면에서 감수성이 예민하고 신체적으로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가족간의 이해와 관심은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은 물론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듯 가족은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환경 중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환경이 되므로 가족기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청소년의 정신건강 상태는 가족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청소년의 올바른 행동을 위한 가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섬세한 반응과 미묘한 변화를 보이는 이 시기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문제에 직면하여 스스로 해결하기 보다는 이를 피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취하기 위한 부정적 행동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청소년 시기의 특성이 반영된 문제들은 한 인간으로서의 성장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성숙과 미성숙이 교차하는 갈등 시기의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의 측면을 이해하여 이들이 인격통합의 조화를 이루어 성인으로서의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행위는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기는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전환해 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아동과 성인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며, 개인에 따라 성장, 발달에는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특성을 신체적 특성과 사회 심리적, 정서적 특성으로 나누어 보면, 신체적 특성으로서 남자는 남성으로, 여자는 여성으로서의 신체적 성숙이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의 신체적, 성적변화에 적응이 어려워 수치감과 불안감을 느끼면서 심리적 부적응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그 결과 사회 심리적, 정서적 특징으로 빠른 생리적 변화에 따른 자신감의 상실과 심각한 정서불안현상이 초래되며, 자아정체성의 확립과 독립하고자 하는 요구에 따른 심리적 이탈의 현상이 있어 타인이나 외부사물과의 종속관계에서 벗어나 내면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자아를 발견하고 독립적인 자아형성을 추구한다. 이 시기에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못하면 자신의 역할에 대한 혼란이 일어나 비합리적 집단행동을 하게 된다. 그리고 정신적 특징으로는 지능의 발달로 지적인 문제 해결능력이 최고 수준에 도달하여 통찰력, 판단력, 사고력으로서의 추상력과 논리성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권이중, 남정걸, 차경수, 최중욱, 최윤실, 최윤진, 1991). Hall(1844-1924)은 청소년 시기를 질풍 노도의 시기이며 그들은 보다 높고 더욱 완전한 인간 특성을 새로이 나타내기 위한 새로운 탄생이라고 하였으며, Freud(1965)는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발달상태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았으며, 사춘기(13-18세)동안에는 2차 성징이 발달한 결과로 성적충동이 나타나며 이러한 사춘기의 격심한 생물학적 변화는 본능과 자아사이의 균형을 깨뜨린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청소년기는 정상적 정신병의 상태이며 이때 청소년이 안정된 평형상태를 유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이라고 까지 하여 청소년기의 혼란은 정상이고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Erikson(1968)은 인간의 발달은 영아기때부터 성인후기까지 일생 동안 계속되며 각 발달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심리 사회적 위기를 경험하고, 매 단계에서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각 개인의 독특한 성격이 형성되며, 이 시기에는 사회적 환경안에서 정체감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게되어 청소년기를 정체감 대 정체감 혼돈시기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는 정체감의 발달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청소년들은 동일성과 연속성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탐구하고자 애쓰며 과거의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한 위기 해결 방법을 반복하면서 정체감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박예숙, 1983). Werkman(1974)은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를 3단계로 나누어 중요한 발달과제로서 초기(12-14세)는 신체변화에 대한 적응 즉 충동통제 및 승화이고, 중기(15-17세)는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해방과 독립이며, 후기(18-21세)는 자아정체성의 확립이라고 하였다(김소야자, 1987). Kolb(1977)는 청소년들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해 가는 이 과정에 부모에 의존하여 평온 상태를 유지하려는 유년기적인 욕구의 경향이 있으나 외부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현실을 파악하고 독자적으로 대처해 독립하고자 하며 빠른 생식기능 발달과 더불어 증가하는 내적 충동에 당황하기도 한

다고 하였다. Piaget(1972)는 청소년기는 구체적 대상과 현실에 대한 관심이 관념적인 계획으로 변형되고 상징이나 추리할 수 있는 인지기능이 진보되어 형식적 사고를 하며 청소년들은 명제적 논리를 다룰 줄 알고 비유를 이해하고 사고에 관한 추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 시기를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였다. Havighurst(1952)는 청소년 시기에 달성하여야 할 발달과업을 비슷한 연령에 속하는 이성과의 관계형성, 성인 남녀로서의 적절한 사회적 역할, 신체적 특성의 수용과 효율적인 사용,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친구나 동료와의 관계수립, 결혼과 가정생활에 대한 준비, 직업선택, 책임있는 행동수행, 적절한 가치체계 형성으로 보았다. 홍정규(1989)는 청소년기는 신체적인 성숙, 이성애의 적응, Id와 Ego의 강한 노출, 자아의식과 자아감정의 발달, 독립된 개체로서의 자기관리, 자아의식과 개성의 발달은 부적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현저하게 성숙되고 정신적으로 인격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사물에 대한 판단이 단순하고 인식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정서적인 혼란과 심리적인 문제를 많이 야기시킨다. 이들은 성장발달과업중의 하나인 성적 주체성 확립이 실패하게 되면 본능적 충동이 증가하여 사소한 욕구좌절에도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 사회응에 힘든 병적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이영자, 1994). 나철(1978)은 그의 연구에서 부모가 자녀를 지배하고 간섭하며 권위적이고 과잉보호하고 경험할 기회를 적절히 제공해 주지 못하여 학교나 사회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현실지향적인 청소년일수록 정체 의식이 혼돈되어 문제행위를 많이 일으킨다고 하였다. 박종원(1982)은 청소년 정신장애환자의 생활사건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들은 인격발달의 중요한 시기를 학교라는 특수한 사회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대처하게 되며, 그 결과 직업선택,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수립 등 여러 측면에서 심리 사회적 상황과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된다고 하였다. Sandra A. Brown(1989)이 138명 청소년과 부모님의 물질남용과 연관지어 생활형태를 검토한 연구에서 이들 중 62명의 청소년은 물질남용을 하였으며 이들 물질남용을 한 청소년들은 나머지 76명의 물질남용을 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사회적응이상과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단지 한 세대의 가족에게서만 물질남용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지속적인 물질남용의 경험이 있는 가족의 청소년들보다 심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특유의 발달과업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적응 및 대처행동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이다. 아울러 이 시기에는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순간적으로 탈선행동이나 즉각적인 충

동행위로 사회 심리적인 부적응 상태에 빠지기 쉬우므로 이들이 갈등을 극복하고 건강한 청소년으로 성장하여 바른 일생을 살아가기 위한 삶의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Ⅲ. 청소년의 물질남용 및 문제점

청소년기는 개인의 정신적·사회적 성장을 잉태하는 시기로 창조적 긴장의 시기이며 이동도 성인도 아닌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어 부모로부터 간섭받는 것을 거부하고 독립을 원하지만 동시에 안정되게 보호받고 관심이 자신으로 기울어 지기를 무의식적으로 기대하는 양면적인 심리 현상을 가지고 있다. 아동기까지의 평온한 시기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급격히 진전되어 청소년들은 심리적 부적응 상태를 경험하여 이러한 상태에서 때로는 비행이나 약물남용, 범죄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그러나 Erikson(1968)은 이러한 청소년들의 고독, 갈등, 방황은 궁극적으로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하였으며 그는 인간의 발달은 영아기 때부터 성인후기까지 일생동안 계속되며, 각 발달단계마다 해결해야 할 심리·사회적 위기를 지니고 있고, 매 단계에서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각 개인의 독특한 성격이 형성되며 이 시기에는 사회적 환경 안에서 정체감을 설정하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게 되어 청소년기를 정체감 대 정체감 혼돈시기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는 정체감의 발달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청소년들은 동일성과 연속성에 대한 새로운 감각을 탐구하고자 애쓰며 과거의 경험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한 위기 해결방법을 반복하면서 정체감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박예숙, 1983). 이 시기에는 신체적 변화, 인지적 발달 및 가정과 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내면적으로 많은 갈등과 고통을 겪게 되는데, 일부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섬세한 반응과 미묘한 변화를 보이는 이 시기에 가정이나 사회에서 불만족스러운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피하고 즉각적인 만족을 취하기 위한 부정적 행동을 하게 된다.

청소년들의 물질남용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약물을 한 두 번 사용해 본 정도를 넘어서서 개인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자아개념 및 지능저하나 손상으로 물질사용에 대한 부정적 방어기제를 사용하며 또래의 물질남용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을 펴지 못하며, 문제 해결시 물질사용으로 도피하여 정상적 일상생활 수행에 장애를 보이며, 가족이나 사회에 피해를 미치는 상태를 말한다(한국문화연구원,

1989). 서울시교육연구원(1988)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단순한 호기심과 모험으로부터 시작해서 친구들의 압력이나 영향, 부모에 대한 반발심, 현대 생활의 압력으로부터의 도피, 소외감이나 사회·경제적 문제, 정서 장애 등 다양한 이유로 약물을 탐닉하게 된다. 그리고 친구와 어울리기 위해서 습관성 중독이 되며, 기분이 좋고 재미있어서, 심심하면 하게 되고 짜증이 나고 집에서 가족과의 충돌로 열을 받으면 하게 된다고 하였다. Elliot, Huizinga & Ageton(1985)은 약물남용은 그 자체가 범법 행위이며,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등의 물질남용은 사회적 윤리 강령에 위반되고, 그런 물질의 남용은 비행 및 여러 규범을 위반하는 문제 행동에 관여하게 되는 역설적 징후라고 주장하였다. Friedman, Utada & Morrissey(1987)는 초기 아동기에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집안이나 학교에서 음식 투정이 심한 경우등 행동상의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자인하고 반항적인 태도가 있을 때 약물남용의 위험이 높다고 하였으며, Wilson과 Kneisl(1979)은 청소년전기의 우울이 청소년 후기의 물질사용을 예측한다고 보고하여, 성장발달과정의 인격적인 특성이 물질사용을 예측한다고 보았다.

청소년들의 물질남용을 유발시키는 요인을 보면, 가족력이 물질남용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생물학적인 관점이 있고(Mandelson & Mell, 1979), 심리적 요인으로는 정체감 혼란, 낮은 자아개념, 자아왜곡(최선화, 1991)을 들 수 있으며,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볼 때는 조기 부모-자녀관계 특히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성향의 사람이 성장하여 환경에서 오는 좌절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쉽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물질에 의존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민병근, 김현수, 1987).

청소년 물질남용자들의 유형과 특성을 살펴보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물질을 한 두번 사용 후 신체적 거부반응이나 양심의 가책, 규범적 가치와의 동조로 인해서 물질사용으로부터 벗어나는 유형과 단순한 호기심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물질남용 또래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물질남용으로 인한 자아개념 및 지능의 손상과 신체적, 사회적, 법적, 직업적 문제를 초래하는 유형이 있다(서영대, 1989).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물질의 종류를 살펴보면 그들은 성인들이 남용하는 물질을 모두 남용할 수 있으나 대개 비용이 싸고 구하기 쉬운 술, 담배, 본드, 부탄가스, 진통 진해제, 니스등의 물질을 택하기 쉽다. 전체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질은 술로써 71.8%를 차지하고, 다음이 진통제 66.4%, 담배 29.6%, 진해제 13.5%, 각성제 11.0%, 본드 4.3%, 부탄가스 4.1%로 일반적인 경험률이 4-10%로

나타났다. 술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흔한 남용물질로 사용 경험은 높으나 습관적 사용도는 낮고, 담배는 술보다 사용 경험은 낮으나 습관적 사용 경험이 매우 높은 물질로, 담배자재에 대한 욕구보다는 흡연을 통하여 성인세계를 체험하고 또래 집단에서 인정을 받고자하는 간접적, 수단적인 성격을 띄고 있다. 본드나 가스는 휘발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뇌에 손상을 주어 몽롱한 기분에 빠지게 한다(서울시 교육연구원, 1988)

외국의 물질사용의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청소년 물질남용은 1979년이 가장 높아 이때는 마리화나를 비롯하여 흡입제, 환각제 등이 술과 담배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미국청소년들에 있어서 1990년에 22.7%가 어떤 유형이든 불법적인 물질을 1회 이상 사용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청소년들의 물질사용 경험이 많게는 32배, 적게는 2배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두 나라간의 차이가 없는 물질은 술, 각성제, 수면제였고 미국이 약간 사용경험이 많은 물질은 담배, 신경안정제, 흡입제였으며 코카인, 환각제는 우리보다 10배 이상사용경험이 많았으며 대마초의 경우는 우리보다 무려 32배나 많게 나타났다. 심각한 불법물질로의 중간단계인 대마초 사용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우리나라와 미국의 음주경험은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가 물질남용 문제에 있어서 안전한 곳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다. 청년의 물질사용에 대한 미국과 한국에서의 차이가 아직은 한국이 모든 면에서 적으나 고3의 음주경험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약물문제의 시작이 음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마약제와 같은 물질문제가 심각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케 하는 요인일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아직 초등학교의 경우 미국과의 음주경험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물질문제가 저학년에게까지 심각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질 사용경험이 저학년일수록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계속 안전하다고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한국청소년학회, 1996). 따라서 물질남용에 대한 조기교육과 전국민적 차원의 계몽활동으로 미리 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미국의 경우와 달리, 사회통제력이 강하고 비교적 청소년 물질남용에 대한 경과가 성공적이라고 알려진 동양권의 싱가포르에서는 2차 대전이전(1819-1946) 기간 중에는 아편이 가장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모든 여성과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아편판매를 금지하게 되었고 1951년 위험약물령을 제정하여 위반에 처벌을 하였고, 1987년 항 정신성 약물법이 제정되어 흡입제 사용의 제지를 하고 국가적 캠페인을 벌여 대중의 인식을 얻었다. 이로인해 흡입제 사용 청소년

들의 수가 통제 이후에 감소하였으나 20세 이상의 남성자들은 줄지 않아 물질남용의 재발율이 높음을 나타내었다(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6).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청소년학회의 조사(1996)에 따르면 마약류(본드, 가스, 대마초, 신경안정제, 히로뽕, 코카인, 환각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등)를 1회 이상 사용해 본적이 있는 청소년은 중학생 8.6%, 고등학생 16.2%, 대학생 12.7%, 근로청소년 20.8%, 소년범죄자 64.0%로 나타나 그 실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물질남용 인구의 증가는 점차적으로 물질남용자의 연령적 하향을 동반한다. 특히 선진국(미국) 청소년의 물질남용 경험은 우리나라보다 2배-32배로 훨씬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술, 각성제, 수면제는 차이가 거의 없었고 담배, 신경 안정제 등은 2배정도, 코카인, 환각제는 10배 이상, 대마초의 경우는 32배가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류별 사용을 보면 3.3%가 본드, 가스등 흡입제를, 1.2%가 코카인을, 0.6%가 각각 히로뽕과 대마초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드나 부탄가스 등 흡입제 사범은 1980년대에는 수백 명도 안되던 것이 1995년에는 6,277명 입건되었으며, 이들의 대부분이 청소년들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에 입건된 마약, 대마초, 히로뽕 등 청소년 물질사범 숫자가 모두 5,418명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물질사범 숫자의 증가는 폭발적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한국 청소년의 물질남용, 특히 마약류와 같은 물질남용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술 복용률의 증가는 이들을 선도해야 하는 가정, 학교, 사회 모두의 책임으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계몽으로 선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물질만능주의와 쾌락주의적 가치의 팽배, 개인주의에 따른 소외감의 증가, 사회전문화에 따른 인간의 부속화 등은 청소년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이중 물질남용 문제는 대표적인 심각한 청소년 문제이다. 미국의 경우 폭력범죄의 약 54%가 술과 관련되어 있으며, 자살의 30%, 자동차 사고의 50%가 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물질 사용과 관련된 사회적 병폐를 보면, 매년 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이 130억\$(한화로 약 10조원), 생산력 손실은 500억\$(약 40조원) 등이다. 전체적인 경제적 손실 총액은 1680억\$(약 135조원)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물질남용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없으나, 개략적인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물질남용을 함으로써, 약 8500억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한국청소년학회, 1996).

물질남용은 자신의 파괴뿐 아니라 가족, 사회의 파괴에까지 이르게 된다. 물질남용은 성인에게도 해롭지만, 특히 청소년에게

는 더욱 해롭다. 청소년들은 성인보다 중독속도나(30세 성인 남성의 경우 8-10년, 15세 청소년 15개월), 감정정체가 빠르기 때문에 감정 조절실패가 더 빨리 진행되며, 대인관계 능력 역시 신속하게 악화되고, 성인기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들이 처음으로 약물을 사용하게 된 시기는 대다수가 13-16세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물질에 대한 조기교육이 있어야 진정한 물질남용 예방교육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비행경험과 물질남용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비행과 물질남용에는 상관관계가 있어 비행경험이 높을수록 물질남용의 확률이 높고, 물질남용을 할수록 비행은 저지르게 되므로 청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물질남용 교육은 필수적이며, 비행청소년을 다룰 때에도 그 청소년이 물질남용 청소년이라면 물질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야만 다시 비행을 저지르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심리적 성향에 따른 물질사용경험을 보면 비판적이고 침체된 심리적 성향을 가진 청소년이 낙관적인 청소년보다 물질사용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시기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청소년기의 스트레스, 정체감 혼란에서 오는 소외와 고독, 좌절로 인해 현실로부터 도피하려하거나 침체되어 있을 때, 이를 물질로써 해결하려 하기 때문이다(민병근 외 2인, 1978). 청소년들의 약물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약물에 대해서 허용적이었으며, 약물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고, 약물의 법적 통제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편이었다. 또한 청소년들은 매우 쉽게 약물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마약상들이 아시아를 그들의 주요시장으로 삼고 특히 우리나라를 마약거래의 통로로 생각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와 같이 청소년들이 물질에 대한 인식이 부재하고 물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현 상황은 우리 청소년 약물남용의 미래를 쉽게 예상케 한다(한국청소년학회, 1996).

이같은 물질사용 빈도의 증가와 신중 물질사용 추세는 물질이 청소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심각한 피해 때문에 우리에게 심각한 우려를 던져 준다. 물질남용의 문제점은 영상매체 및 인쇄매체와 같은 다른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인한 피해와는 달리 그 피해가 청소년들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정신적 신체적인 훼손을 야기하며 정상적인 성장경로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한다. 특히 많은 경우 청소년들의 물질사용은 비행이나 범죄로 연결되기 쉬워 한 순간의 호기심과 부주의로 자신의 전체 인생을 포기해야 하는 예기치 않은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어 그 심각성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청소년 물질 남용의 문제점을 파

악해 이에 대한 간호중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당면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IV. 청소년의 물질남용과 간호중재

청소년물질남용은 현재 중요한 사회문제로 되고있으며 이는 문제 특성상 청소년 자신의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빼앗아 가족은 물론 사회에까지 심각한 폐해 현상을 초래하여 위기상황에 빠지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물질남용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대상층도 일반인을 포함해 학생, 청소년들에게로 확산되고 있으며 남용 물질의 종류도 다양해져 본드와 부탄가스 흡입 및 항정신성 의약품의 남용이 만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남용자의 분포도 일부 도시에 국한되었던 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물질남용자의 수적증가, 지역적 확산 및 사용계층의 대중화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물질남용은 한번 발생하면 평생문제로 남게되고 치료의 성공률도 낮아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이를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올바른 부모의 역할과 학교와 사회의 역할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김경빈, 1992; 민병근, 김현수, 1987; 한국청소년학회, 1996). 청소년의 불만은 주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나온다. 이들의 불만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화 및 비행, 그리고 부모의 물질사용으로 기인해 이러한 부모에 대한 분노와 불만은 청소년들의 물질의존 태도보다는 물질사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올바른 가족체계의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물질남용의 특성을 알아 이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여 치명적인 물질남용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급 학교에서는 시대변화와 청소년의 욕구에 부응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함이 요구되며 물질남용에 대한 교육이 입시교육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주어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청소년의 물질사용의 경험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가장 많이 증가하며 습관적 사용경험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가장 높게 증가한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는 성인사회에 대한 호기심으로 처음 물질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는 물질을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시기 혹은 본격적인 물질사용 시기라고 할 수 있다(이나연, 1995). 따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마다 각기 다른 차원의 성장발달에 대한 부모, 학교 및 사회의 이해와 역할이 중요하며, 적절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기에 알맞은 예방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알콜중독자 자녀로서의 증상을 갖는 청소년이 10%

정도 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므로 이들에 대한 관심을 쏟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알콜중독자 자녀로서의 증상을 나타내는 청소년에 대하여 학교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알콜중독자 배우자 모임(Alanon), 자녀모임(Alateen)이 활성화되도록 하며 금주,금연 프로그램의 확대도 요구된다.

Brenda J. Wagner(1984)는 청소년의 물질남용 중재에 관한 연구에서 청소년물질남용은 학생들의 학업과 대인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를 통하여 문제를 확인하는 것은 물질남용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의 단서를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학생이 불법적으로 물질을 남용한 자로 확인되면 학교내의 학생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선생님들이 학생과 가족을 위하여 중재할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한 중재전략으로는 중재과정에 부모가 참여하여야 하고 물질남용과 관련이 되는 행동이 자신들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하여 학생들의 의미로운 학교생활과 건강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들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문제 학생이 보다 건강한 생활 쪽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후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에게 올바른 생활기술을 익히게 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감정처리, 의사결정, 긍정적 행동, 기분유지, 의사소통, 거절하기를 익히는 생활기술은 사회적 기술의 총체로 다른 사람과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맺도록 해주며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감정과 신념을 형성하여주고 신체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된다. 생활기술을 익힌 청소년들은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가족과 친구 등 주위 사람에게 진실한 태도를 보이며 자신의 사고, 감정, 행동을 잘 억제하고 책임질 줄 안다 이런 생활기술은 물질사용을 예방하게 하며 생활기술을 익힌 청소년은 물질사용에 쉽게 빠지지 않는다. 이런 청소년들은 물질사용을 기피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부작용을 깨닫고 극복하려고 할 것이다. 청소년들이 물질관련 예방교육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시민 단체가 자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 나아가서는 직업교육까지 확대 실시하며 약물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일정한 교육기능도 가져 인적, 물적자원의 활용됨이 바람직하다. Linda Dusenbury, Mathea Falco(1995)의 연구에서는 15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물질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과정의 중요한 요소들이 제시되었다. 효율적인 예방프로그램에는 물질에 관한 올바른 정보의 개발, 물질을 거부할 수 있는 훈련과 규칙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물질남용학생들을 파악할 수 있는

문화적인 감수성 개발이 예방프로그램의 성공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물질남용 청소년이 일단 발생하게 되면 문제해결을 위해 문제의 실체에 들어가 대상을 조기 발견하여 확산되기 이전에 막아야하며 청소년 물질남용자에 대한 치료, 재활체계 및 진료비 지원등 의료 혜택을 시행하여야한다. 현행의료보호법 제 12조 제 1항의 경우 범죄행위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킬 때 의료보험법 제 41조 제 1항의 경우 보험자는 보험급료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킬 때는 보험급료를 실시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물질남용은 범죄행위이므로 의료보험 및 의료보험 급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김경빈, 1992; 한국청소년학회, 1996). 청소년들의 재범방지 등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복귀를 위하여 이들에게 적절한 의료혜택을 주어야하며 치료체계가 확립되어야한다. 또 약물전공 내과의 및 정신과 전문의, 사회사업가, 임상심리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카운슬러 등으로 구성된 약물치료센터를 만들어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치료경험을 주고 간접적인 여러 생활 경험 또한 동시에 제공해 심각한 정서적 손상 없이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한다. 또한 이들 물질사용자들이 성공적으로 치료되더라도 사회적 적응의 실패로 다시 물질사용의 위험에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청소년들간의 건전한 교류를 통하여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함으로써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새로운 에너지 충전으로 건강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모임(동아리 활동)이 모색되었으면 한다. 이렇듯이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와 청소년과의 연계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하여 이들의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같이 청소년 물질남용에 대한 중재방안은 가정의 체계 확립과 사회제도적 접근과 사회심리적 접근이 필요하다. 청소년 물질남용에 대한 예방교육체계를 만들고 이를 기초로 제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간호중재와 더불어 이들에 진단과 치료와 재활을 실시하는 체계적 방안의 실시는 중요하다. 청소년에 있어서 물질남용은 복잡한 문제이며 욕구만족을 얻기 위한 방법, 자신에 대한 약점과 내적 공허감을 메꾸려는 시도, 동료집단의 지지에 의한 반항의 표현이다. 청소년은 격리된 고독감의 공허감을 물질로 채우며 이러한 물질은 신체적 정신적 불구로 만들어 현실세계에서 성인의 정체감 발달마저 파괴하려는 경향을 조장함으로써 건강한 성숙을 지연시키게 된다(표갑수, 1993). 이에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우리 가치

관에 근거한 예방과 재활을 통한 간호중재 방안으로 더 이상의 청소년들이 물질남용으로 빠지지 않게 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이 요구된다.

V. 청소년 물질남용과 관련된 연구동향

최근 들어서 약물사용하는 대상자의 나이가 하향화하는 추세에 있으며, 약물사용 청소년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 약물남용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다(김성이, 1992; 김소야자, 1991; 배종면, 안윤옥, 박병주, 1994; 보건사회부, 1988; 주왕기, 1991).

민병근, 백영기(1981), 김현수(1985)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은 흥분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모범적 행동을 즐겨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행동을 한 때가 많은데, 이것이 차단될 때 물질에 의존하게 되고, 그들의 추구가 좌절되고 폐쇄될 때 분노 등을 흡입하여 자신들의 내적 욕망을 채우려하고, 물질남용 청소년의 52.2%는 정서적으로 자신의 격정적 감정을 빠르게 진정시키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신경 안정제, 수면제, 마리화나 같은 환각제를 사용한다고 하였다.

물질남용 행위와 성격적인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연구가 있다. 술의 경우에 나타나는 성격의 특징은 개인적 통제 의 부족(이봉진, 1989), 높은 불안과 우울(Mendelson & Mell., 1979), 공격성과 충동성(Knight, 1967), 정신장애와 정동장애(Goodwin, 1982)가 있고, 마약의 경우에는 자아 중심적 특성, 정신적 문제 또는 성격장애 등이 나타나며, 환각제의 경우에는 욕구 좌절을 견디지 못하고, 완고하고, 급하고, 사회적 개방성이 있고, 자신감이 있으며, 정신병리와 관련성(우울과 성격장애)등의 성격 특징이 나타난다(박종규, 1988).

McIlellan, Woody 와 O' Brian(1979)의 연구에서는 급성적으로 물질을 사용하는 경우는 중요한 인물의 상실, 가족간의 갈등, 학업성적부진과 같은 스트레스의 해결책으로 일시적으로 물질에 의존하게 되며, 장기적으로 물질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개인 내에 존재하는 심리적 갈등이나 성격특성, 성격구조와 물질남용간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성격구조, 즉 성격장애에 따라 물질 선호가 다르고 성격장애 특히 반사회적 성격이 물질에 취약한 성격이라고 말한다(Hale, Hessel Brock, 1982). Fishman, Stanton, Rosman(1982)의 연구에서는 약물을 이용하도록 하는 친구들의 압박에 대한 취약성, 자아존중감, 건강에 대한 내적 통제 등이 약물사용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hen등(1993)은 10세-20세를 대상으로 9가지

질환에 대한 유병률을 조사하였는데 물질남용자의 50%에서 파괴적인 행동양상을 보였고, 감정장애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Greenbaum, Prange, Friedman, Silven (1991)은 약물사용 교육프로그램에 포함된 12세-18세 청소년 547명을 조사하였는데, 품행장애와 우울증이 물질남용과 높은 비율로 관계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청소년의 물질사용에 대해서, 가족 특성에 관해 분석한 연구를 보면 양친이나 형제들이 물질남용을 해온 가족에서 양육된 청소년들은 그들 스스로가 물질 남용자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양친의 태도가 청소년의 약물복용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불화, 양친의 거부, 이혼 등이 물질남용과 관련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권영복, 1989; 김성이, 1992; 이경영, 1993; 이윤지, 이정애, 1993; 주왕기, 오수일, 전완주, 김수희, 주진형, 김철춘, 1991). 정신분석학 이론에서 볼 때 약물사용은 조기 부모-자녀관계 특히 모친과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 성장하여 환경에서 오는 좌절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쉽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물질에 의존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민병근, 김현수, 1987). 가정환경 중 결손가정의 경우와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는 하숙생의 경우,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청소년의 경우 물질 사용율이 높다는 연구(권순경, 1989)의 결과를 보면, 가정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된다. 과거와 현재의 부모-자녀간의 상호 작용은 청소년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화와 훈련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면, 대인관계 형성 능력에 지장을 초래하여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되어 역기능적인 가족과 얽혀있는 청소년은 물질남용같은 병적 행동을 보이게 된다(김소야자, 1982; Sandra A. Brown, 1989). 이와 같이 청소년의 물질남용은 그 개인에게 비롯된 문제도 있으나 그들의 가정환경이나 지역환경, 학교생활, 근친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정과 학교의 역할, 정부와 사회단체 및 지역사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약물남용 예방 프로그램의 발달과정을 살펴보면, 물질남용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 1960년대 미국의 물질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물질과 그 효과에 관한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나 법적이고 의학적 측면에서의 물질사용 결과에 대한 지식의 증가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한국 청소년학회, 1996). Botvin(1986)은 개인적이며, 대인관계 기술훈련과 사회 영향력 기술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물질남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논문을 살펴보면 주로 물질 오·남용 실태에 관해서 조사한 연구

는 비교적 많으며(권영복, 1989; 김성이, 1992; 김소야자, 1991; 이경영, 1993; 이윤지, 이정애, 1993; 배종면 등, 1994; 주왕기 외 5인, 1991), 주로 약물사용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해 시도한 연구 및 종적 연구설계가 많이 행해졌다. 문화체육부에서도 매년 '청소년 물질남용 실태와 대책 연구'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문은 주로 실태 분석에 그치고 있고, 청소년 물질남용 행위에 대한 지금까지의 접근은 신체적 차원이나 정서적 차원의 접근으로 사회 통제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미래사회의 이들에 대한 대처방안은 사회제도적인 접근과 아울러 사회 심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혼란과 갈등의 시기인 청소년기에 그들이 어떤 심리적 상태에 놓여 있는지는 청소년들의 물질사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심리적 상태에 다른 물질사용 경험을 알아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한 인간을 통합된 존재로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는 간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사용하는 물질이 청소년의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접근법이 중요하다. 그리하여 이를 통해 물질남용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모순을 인식하고, 그들의 생각, 느낌 등 대상자의 살아있는 경험을 그대로 파악하고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청소년 물질 남용자의 체험 세계를 밝힘으로써 물질남용 청소년들의 질적인 삶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VI. 결론 및 제언

우리사회의 미래를 주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세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이들의 건강한 정신, 신체는 미래의 건강한 사회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청소년 사회문화의 건전한 지도와 안내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기성인의 책임이며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과도기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사회의 청소년 문화는 근본적인 가치체계의 흔들림과 함께 위험수위를 지니고 있어, "정신 세계"나 "인간성"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으며, 이의 대표적인 현상이 물질사용·남용과 폭주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순수하고 예민하며, 맑은 정신과 지성을 지니고 또한 함양해야 하는 청소년기의 이와 같은 형태적 변화에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가족, 학교, 사회 등의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이에 따른 구체적인 문제점을 확인·검토하여 대책 및 간호중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신체·심리적으로 전환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과 물질사용으로의 폐해를 예방하여 건

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발달을 꾀할 수 있으리라 사려된다.

이와 같은 필요성과 목적 하에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청소년의 특성은 아동기로부터 성인기로 전환되는 과도기로 생리·신체 및 심리·정신적 변화를 겪으면서 독립성과 자아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신체·생리적 변화에 따른 정신·심리의 대처양상 욕구와 충동에 민감하고 즉각적이며 독자적 대처가 불가능한 현상을 나타내 가족이나 학교 및 지역사회는 이와 같은 청소년기의 특성을 이해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 하겠다.
2. 청소년의 물질사용 시기를 보면,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사용시기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입하는 때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습관화되는 시기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입하는 때임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장발달에 의한 여러 가지 신체·생리적 변화에 따른 사회·심리적 변화를 파악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교육이 요구된다 하겠다.
3. 청소년들이 물질남용하게 되는 주된 동기는 신체·심리적 으로 예민한 시기의 단순한 호기심이나 또래집단의 형성 자극에 의한 것으로, 이와 같은 현상을 지속 또는 습관화시키는 것은 가족력, 정체성 혼란, 자아개념, 자아왜곡, 부모-자녀관계(특히 어머니)의 의존적 성향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이와 같은 원인을 파악하여 예견되는 취약점을 강화시킴으로 이에 대한 예방이 가능하리라 사려된다.
4. 청소년들이 남용하는 물질의 종류는 술, 담배, 마약류(본드, 가스 대마초, 신경안정제, 히로뽕, 코카인, 환각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등)로, 그 사용의 폐해가 뇌세포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종류로 전환됨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마약류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인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시기에 호기심으로 시작되는 술·담배에 대한 사용의 문제점을 충분히 교육하여 이해 시킴으로써 습관적인 물질남용을 예방하는 대책이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5. 청소년 물질남용과 관련하여 제공되어야 할 간호중재를 살펴보면, 첫째, 가족, 학교,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성장 발달 단계별 변화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이해와 관심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청소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예: 성장발달별 인체 및 생리적 변화, 심리변화, 사회적

역할, 물질사용으로 인한 폐해, 건전한 놀이 문화, 물질남용에 대한 홍보영화, 특강 등).

셋째, 청소년을 위한 학교나 지역사회의 건전한 운동 및 활동동아리가 구성되어 청소년들의 왕성한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조성이 요구된다.

넷째, 물질남용으로 치료를 받은 청소년들의 사회복귀시, 이들의 원활한 사회적 적응을 위하여 가족, 학교 및 사회가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6. 끝으로 청소년의 물질사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이들의 심리·정서상태가 반영되는 생활세계를 정확하게 확인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이상의 연구결과 및 결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 1)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과과정 내에 청소년의 성장 발달과정의 특성 및 물질사용의 문제점에 대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적절한 시기에 체계적으로 교육시켜, 이에 대한 심각성을 고취시킴이 요구된다.
- 2)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모든 과정에 청소년을 위한 놀이 문화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 등을 조직적이고 구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이 요구된다.
- 3) 우리 나라 청소년의 물질남용과 관련된 제반 사항의 탐색적 연구가 요구된다.

참 고 문 헌

권순경 (1989). 중고등학생의 약물사용 실태조사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덕성여대 의학자원.

권이종, 남정걸, 차경수, 최중욱, 최윤실, 최윤진 공저 (1991). 청소년 교육론. 서울: 양서원.

김경빈 (1992). 청소년 약물 오·남용. 보건사회부 대한보건협회.

김성이 (1992).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 이화여자 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김소야자 (1982). 가족 환경에 대한 지각의 불일치와 정신 질환자 발생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_____ (1987). 청소년 성장발달과 간호. 서울: 수문사.

김소야자, 김윤희, 이광자, 이소우, 유숙자 (1996). 정신간호총론. 서울: 수문사.

김영찬 (1985). 한국인의 학동기 사회화과정 연구. 한국 정

- 신문화 연구원.
- 김태련, 장휘숙 (1991).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 김현수(1985). 청소년과 약물남용. 의학신보.
- 김현수, 민병근 (1988). 청소년 약물문제. 중앙의대지, 13(3).
- 나 철 (1978), 한국고교생에 관한 정신의학적 조사, 신경정신의학, 17(3).
- 민병근 (1978). 한국 청소년의 의식구조와 행동양식. 오늘의 청소년, 1(4).
- 민병근, 김현수 (1987). 청소년의 약물남용. 신경정신의학, 26(4).
- 민병근, 백영기 (1981). 비행 청소년의 약물사용빈도 및 약물사용 양상에 관한 사회정신의학적 연구. 신경정신의학, 20(3).
- 박예숙 (1983). 인간의 성장발달과 건강증진. 서울: 수문사.
- 박종원 (1982). 청소년 정신장애 환자의 생활사건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1(3).
- 박중규 (1988). 약물사용 청소년의 심리 및 사회적 특성. 연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종면, 안윤옥, 박병주 (1994). 대학생 흡연량과 스트레스와의 관련성. 예방의학회지, 27(1).
- 보건사회부 (1988). 약물오용·남용. 서울: 보건사회부.
- 사회정신건강연구소 (1996). 2000년, 우리청소년의 모습은? 개소기념 심포지움 보고서.
- 서영대 (1989). 마약류 오·남용의 치료 및 재활 대책. 제 5회 형사정책세미나보고서. 법무부연구원.
- 서울시 교육연구원 (1988). 약물 오·남용·예방지도 보고서.
- 이경영 (1993). 일부 중학생들의 약물사용 실태.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나연 (1995). 비행 및 약물남용 청소년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봉건 (1989). 이상 심리학. 서울: 성화사.
- 이영자 (1994). 학교 청소년 간호. 대한간호, 24(3).
- 이윤지, 이정애 (1993). 광주지역 남자중/고등학생의 흡연실태와 흡연관련 요인. 예방의학회 지, 26(3).
- 장혁표, 제석봉, 김정택 (1995). 가족치료.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정우식 (1986). 인간: 생의 주기를 통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서울: 집문당.
- 주왕기, 오수일, 전완주, 김수희, 주진형, 김형춘(1991).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약물남용 비행경험 실태. 강원대학교 논문집, 31. 사회과학연구소.
- 최선화 (1991). 약물 남용 청소년을 위한 집단 사회사업적 개입 모형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문화연구원 (1989). 청소년 약물 남용실태와 예방.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청소년문화의 실상과 문제 보고서.
- 한국청소년학회 (1996).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와 예방대책 연구. 문화체육부.
- 홍강의 (1984). 제 2차 개별화 시기로서의 청소년기. 서울의대 정신의학보, 8(12).
- 홍정규 (1989). 한국인의 청소년 사회화과정연구. 서울: 한국정신문화 연구원.
- 표갑수 (1993). 청소년 약물남용 실태 요인 및 대처 방안. 성곡논총, 24. 성곡학술 문화재단.
- Angell, R. C. (1936). The family encounters the depression. New York: Charles Scribne & Sons.
- Botvin, G. J. (1986). Substance abuse prevention research: Recent development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School Health, 56.
- Brenda, J. Wagner (1984). Intervening with the Adolescent involved in substance abuse. JOSH 54(7).
- Cohen, P. Cohen, J. & Kasen, S. (1993). An epidemiological study of disorders in late childhood and adolescence, I: Age and gender-specific prevalence. Journal children psychiatry, 34.
- Elloit, D. S. Huizinga, D & Ageton, S. S. (1985),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New York: Sage Pub.
- Erikson, E. H. (1972). Eight stages of man. In C. S. Lowatelli & F. Stendler(Eds.). Readings in child behavior and child development. New York: Harcour Brace. Javanovich.
- Erikson, E. H. (1968). The problem of ego identity. American Journal. Psychoanalysis. Assessment, 4.
- Freud S. (1965). The ego and the mechanisms of defenc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Fishman, H. C., Stanton, M. D., & Rosman B. L. (1982). Treating families of adolescent drug abusers. In M. D. Stanton, T. C. Todd, & Associates(Eds.). The family therapy of drug

abuse and addiction. New York: Guilford Press.

Friedman, A. S., Utada, A., & Morrissey, M. (1987). Families of adolescent drug abusers are rigid: Are these families either disengaged or enmeshed or both? Family Process.

Goodwin, D. W. (1982). "Substance induced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lcohol:" In J. H. Griest, J. W. Fefferon, & R. Spitzer(Eds.). Treatment of mental disorder. New York: Oxford Univ. Press.

Greenbaum, P. E. Prange, M. E. Friedman, R. M. & Silven, S. E. (1991). Substance abuse prevalence and comorbidity with other psychiatric disorders among adolescents with severe emotional disturbance. Journal. American Academy Children Adolescence Psychiatry 30.

Hale, M. S., Hessel Brock, J. and Hessel Brock, V. (1982). Childhood deviance and sociopathy in Alcoholism. Journal Psychiatric Treatment Evaluation, 4.

Hall, G. S. (1916). Adolescence(2nd ed). N.Y.: Appleton.

Havighurst, R. L. (195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Longmans.

Hoffman, J. A. Weiss B. (1987). Family dynamics and presenting problems in college student. Journal of counselling psychology, 34(2).

Knight, R. P. (1967). "The dynamics of chronic alcoholism".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86.

Kolb, J. (1977). Modern clinical psychical psychiatry (9th ed). Philadelphia: W. B. Saunders Co.

Linda Dusenbury, Mathea Falco (1995). Eleven components of effective drug abuse prevention curricula. Journal of school health, 65(10).

Mandelson, J. H. and Mell, N. K. (1979). "Biological concomitants of alcoholism. Engel, N. Journal medicine, 301.

Mellellan, A. T., Woody, G. E. and O'Brian, C. P. (1979). "Development of psychiatric illness in drug users: Possible role of drug preference. Engel. N. Journal Medicine, 301.

Piaget, J. (1972). Intellectual evolution adolescence to adulthood. Human Development, 15.

Sandra, A. Brown, Ph. D.(1989). Life event of adolescents in relation to personal and parental substance abuse. American journal psychiatry(146).

Westley, W. A., & Epstein, N. B. (1969). Silent minority: Families of emotionally healthy college students. Sanfrancisco: Jossey-Bass.

Wilson, S. & Kneisl, C. R. (1979). Psychiatric Nursing. Addison-Wesly Pub.

-Abstract-

Key concept: Substance abuse

A Literature Review on the Adolescent Substance Abuse

Kim, Kwuy Bur · Lee, Kyung Ho ***

Substance abuse, which leads to juvenile delinquency and other troubles, is one of the most serious problems for the adolescents today. The frequency of the adolescent substance abuse has been growing every year, but the effective methods to cope with the problem have not been well developed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to the more favorable ways by review the literature on substance abuse systematically.

This study is a research based on the overview of the literature so that we may identify the present conditions of the adolescent substance abuse, its types, its problems and the nursing intervention.

This literature review results in the following suggestions. Substance abuse is prevalent among

* Professor, School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Doctoral candidate, School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the adolescents enough to be considered as one of our society's major problems. So policy makers as well as government and private agencies should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substance abuse and associated problem behaviors. Moreover, it is necessary that the adolescents should remind themselves of the seriousness of substance abuse. Once the health professionals notice the adolescents' involvement in substance abuse, they

need to approach them with the parental concern in order to establish rapport with them by using tactful questions that can assess their feelings, behaviors, and experiences. The exploratory study is prerequisite to the solution of that problem. The development of the wholesome recreational programs and culture for the adolescents is also essential to prevent them from being involved in substance abuse.